

이색 킬러콘텐츠 즐비...확 달라진 광양매화축제

8~17일 열흘간 섬진강변 다압면 매화마을 등지에서 열려 매화랑 1박2일, 벚길·매실 하이볼 체험 등 풍성한 행사

‘봄꽃의 향연’ 광양매화축제가 예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광양시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매화축제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섬진강변 다압면 매화마을 등지에서 열린다.

시는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대거 도입하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축제는 8일 오후 2시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광양(매화), 신안(난), 함평(국화), 담양(대나무) 등 4개 지자체 축제 협업 선포식으로 화려한 막을 연다.

사군자 테마 4개 지자체 협업으로 봄 대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양매화마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사군자테마관을 설치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 주제의 그림, 한복, 서예 작품 등을 전시하고 4개 시·군 축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다.

개막일 오전 11시 축제장 주무대에서는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개막 퍼포먼스로 자신의 종전 신기록인 4시간 45분 경신 도전을 통해 전 세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린다.

개막일 오후 3시에 열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는 방문객들에게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와 나란히 얼음 위 맨발로 버티기에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일과 주말에 걸쳐 총 다섯 동안 펼쳐질 이번 이벤트의 최장 기록자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커플링이 증정될 예정이어서 뜨거운 호응과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축제에는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



광양시가 지난 4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험, 웃소매 매화 끝동, 나만의 공간:매화나무 아래에서 등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가 도입된다.

또 섬진강 벚길 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광양맛 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풍성하다.

‘섬진강 맨발 걷기’는 둔치주차장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걸으며 봄을 마중하는 콘셉트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축제의 주제를 살린 사군자 그리기 체험, 매화 손수건 만들기, 매화 캘리그래피 체험 등 프로그램도 축제 전 기간 상시 운영된다.

문화예술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양시립예술단, 매화와 예술이 꽃피는 청춘버스킹, 태극노래자랑, 우리동네콘서트 등 풍성한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달구고 방문객들에게 낭만을 선물한다.

매실 받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할 매실홍보부스, 광양담야 매실도시락, 매화마을 직거래장터, 광양시 농·특산물 판매장 등도 운영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8일 개막하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찬 봄을 선인할 봄의 제전,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서 지구와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고 귀한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미래혁신지구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문 열었다

축매 제조 핵심 장비 23종 갖춰 온실가스 저감 실증·기술 지원



의 축매 제조 실험실 구축을 위한 1차 사업으로 마련됐다.

2차 사업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개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

1차 구축된 실증센터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증·기술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곳에서는 연구원 등 13명의 인력이 일한다. 오는 2030년까지 40명까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전남도와 한국화학연구원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여수산단을 저탄소·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산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론,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가 팔영대교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팔영대교 연계 관광 활성화 속도

스마트 복합쉼터 등 조성 현장점검

고흥군이 여수반도와 연결된 팔영대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공영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팔영대교 인근 영남면 우천리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회의는 공 군수와 부군수, 실·단과소장, 영남면장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운영을 앞둔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와 ‘고흥-거제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는 고흥에서 여수를 잇는 팔영대교 인근에서 사업비 107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수소충전소, 음식점, 카페, 농수특산물 판매소 등 복합 편의시설이다. 4월 말 운영을 시작한다. 또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인근에 위치한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조성 현장도 점검했다.

40억원의 순수 국비로 조성 중이며, 영남면 우

두해변을 따라 팔영대교를 배경으로 2km가량 이어지는 산책로인 ‘쪽빛너울길’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개방을 앞두고 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매일 군 주요 추진 사업 현장, 시설 등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를 통해 군정 현안과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가 고흥의 색깔을 담은 특색 있는 방문객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남면 남영리관광의 기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리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 방면에서 고흥을 찾는 첫 진입로라 할 수 있는 팔영대교 인근의 남진 트로트박물관·우주발사전망대·남영해돋이해수욕장(서평 명소) 등과 관광코스를 연계하고, 향유 미르마루길 모노레일·용암 스카이워크 등 중요시설을 마무리시켜 팔영대교 일대를 고흥의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 ‘7남매 다둥이 가정’ 새 보금자리 입주

보성군·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새 집



김규용(오른쪽) 보성군 부군수와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이 7남매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입주식에서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7남매 다둥이 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군 문덕면 온곡마을에서 7남매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입주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보성군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펼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마련됐다.

‘보성사랑·아이사랑’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아동에게 알맞은 주거 환경을 지원한다.

보성 7남매의 집은 단열과 환기에 취약하고 붕괴 위험이 있었다.

보성군 등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7남매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실과 성별에 따른 아이 방을 배려했다.

2층에는 옥탑방을 뒤 안락한 주거 공간을 완성했다.

보성군은 주민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연계

한 보성사랑·아이사랑 캠페인 모금을 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김규용 보성군 부군수는 “보성군의 꿈나무들

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민·관이 상호협력·연계가 중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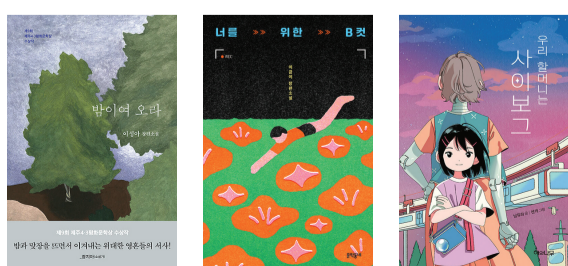
매천도서관 ‘책 읽는 구례, 올해의 책 3권’ 선정

구례군매천도서관이 함께 책 읽는 구례, 2024 올해의 책 3권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책 읽는 구례, 2024 올해의 책’은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된 독서 운동이다.

구례군매천도서관은 도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군민이 함께 읽을 책을 어린이, 청소년, 소설 부문으로 나눠 1권씩 선정했다.

어린이 부문 선정작 ‘우리 할머니는 사이보그’는 남유하 작가의 작품이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



가 사라지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전하지 않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성장동화다.

청소년 부문 ‘너를 위한 B컷’은 이금미 작가의

소설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편집된 모습이 아닌 본연의 내 모습을 찾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이다.

소설 부문 ‘밤이여 오라’는 이성이 작가의 소설이다.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에 연루된 개인의 비극적 이야기와 그 폭력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는 인물들의 분투를 그려냈다.

구례군매천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정 도서 5권씩을 구입해 1년간 ‘책 읽기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의 책 독서 운동을 통해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고, 구례군매천도서관이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는 군민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경찰, 입학철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운동

순천경찰서는 초등학교 입학철을 맞아 ‘합동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운동(사진)’을 벌였다.

지난 4일 열린 캠페인에는 순천경찰서와 순천교육지원청, 신대초등학교 학생회 등 35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 학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전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

소년 마약·사이버 도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물을 만들어 범죄 심각성을 알렸다.

국순인 순천경찰서장은 “3·4월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